목어

새로운 물결

요즘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낙선 운동은 구시대적 사고에 맞서 새로움을 갈망하는 국민적 의지의 표현이다.

하나의 제도가 일단 정착하면 그것이 처음 설립된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 제도에 기생하는 족속들이 배출될 수 있다. 본래 정치는 국가 대사를 위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고 정당 내의 역학 구조만을 이용하여 보신하거나, 겨우 지역민의 감정에만 연합하여 나라의 앞길을 망치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적지 않다.

자기 당 소속 의원의 범죄행위를 감싸주고 방탄조끼 역할을 하고, 걸핏하면 국회를 비워 두고 특정 지역에 내려가 대중 선동을 일삼는 당을 적극 경고하고, 지난 날 독재적 권력에 줄서기하고 반민주적인 행동을 일삼아 온 정치가의 국회 진출을 막는 일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후손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이제 국민은 정보화(인터넷)로, 충분히 정당이나 국회의사당을 거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력도 갖추게 되었다.

정보화는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경계를 애매하게 만들고 있다. 국가 간의 국경이나 학문 분야의 경계가 무너지고, 또 나아가서는 정당과 시민단체의 경계도 사라지고 새로운 장이 등장하고 있다. 국가 권력은 NGO의 힘에 밀려 기존의 특권을 하나씩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앞으로의 시민운동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날뛰는 언론, 경제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이다. 아무리 파렴치한 행위를 해도 자기가 소속한 기관, 기업의 장에 대해서는 공공연하게 성원을 보내는 일도 막을 것이다.

범국민적 의지를 결집한 시민단체는 결코 특정 집단의 오만을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불합리한 기존의 제도와 정보화의 물결과의 충돌에서 야기된 카오스는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낡은 부정적인 틀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새 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스스로 시대 착오적인 자세를 버리는 일만이 생존의 지혜가 될 것이다.

김용운(창의기획학회장 · 본지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현대불교 www.buddhapia.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개념설명 치중 도식화로 흘러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❹선어록 해설의 문제점

박영록
충주대 교수
중국어

중국 명나라때의 선어록 해설서인 〈소선록〉에 나오는 얘기다. "한 선사가 어떤 처사에게 만가지 인연을 쉬게 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 있으라고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밤 오경까지 앉아 있노라니 문득 전에 아무개가 보리 한 말을 꾸어가고는 아직 갚지 않은 것이 생각났다. 그는 아내를 불러서 깨우며 말했다. '선사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대로 정좌하고 있었더니 이익이 있구료. 하마터면 그 아무개에게 보리 한 말을 떼먹힐 뻔 했으니.'"

만약 이 사람이 "좌선하니 효험이 있다"고만 말하고 뒤에 "보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사실 사람의 머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선어록에 등장하는 선사들의 말이라면 그것이 어디를 향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정상아닐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사들의 말을 이해하는 하나의 공식이 있다. 그 들이 항상 '법의 세계'에 거한다는 전제 아래, '본래 구족과 평상심'의 관점으로 어구를 풀고, '절대, 평등, 무차별'로 수식한다는 공식이다.

근래에 간화선(看話禪)으로는 깨달음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간화선이 초기의 생명력을 잃고 도식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런 도식화는 알게 모르게 선어록 해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비근한 예를 들 수 있다. 가끔 '선은 활발발(活潑潑)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은 이런 말을 하는 순간에 이미 선, 최소한 선어록의 기록을 해설함에 있어서는 도식화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런가? '활발발'이 살아있는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선어록을 한두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말이므로 동질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말 그대로 '활발발'하게 살아있는 어휘는 아닌 것이다.

나는 선어록 해설에서 도식화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곳이 바로 '핵심 언구'에 천착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어떤 선어록강의에서 "선에서 평상심은 흔들리지 않는 여여한 절대무심의 세계"라고, 또 "한 수좌가 운문선사에게 가르침을 구하자 '죽 먹고 밥 먹는 것'이라고 했는데, 선의 세계에서 죽과 밥은 단순한 양식의 의미를 뛰어넘는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근원이다"고 해설하고 있었다. 이러한 해설이 100점짜리 답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나로서는 씹어도 씹히는 맛이 없고 배도 불러오지 않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원래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까?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배고프면 밥을 먹는다'는 '행위'이지 '밥'이 무엇을 상징하느냐가 중점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위 해설이 '죽 먹는 행위'에 대한 해설이 아니라 '죽'에 대한 개념을 해설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평상심' 역시 마찬가지다. '평상심을 가진 이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심'에 대한 개념만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여여한 절대무심의 세계'라고 하지 왜 '평상심'이라고 표현했을까? 도대체 '평상심'을 '절대무심'으로 치환한다고 해서 무엇이 밝혀진 것인가?

'남전스님이 고양이를 죽인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조주스님은 남전스님이 고양이를 죽였다는 말을 듣고는, 아무 말 않고 짚신을 머리에 쓰고 방에서 나갔다고 한다. 조주스님이 왜 발에 신어야 하는 짚신을 머리에 썼을까? 이것이 핵심대목이지만, 가끔은 비본질적인 부분에도 눈길이 가는 것이 인지상정. 나는 한동안 엉뚱하게도 왜 조주스님이 방에 짚신을 신고 들어왔을까 하는 고민을 했었다. 평소의 생활환경에 따른 무의식이란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 방안에서는 신발을 벗고 사는 우리 습관상, 어떻게 조주스님이 방안에서 짚신을 머리에 쓸 수 있었을까하는 점이 궁금했던 것이다. 일부러 짚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쓰고 나갔을까?

이런 의문은 중국, 특히 북방에서는 추위 때문에 법당안이나 요사채에서도 신발을 벗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너무도 쉽게 풀려버렸다. 사실 중국인들은 실내에서도 신발을 벗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선어록을 읽는 동안에는 계속 우리네 절집만 머리속에 떠올랐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어록 해설서들은 짚신을 머리에 이는 전도(顚倒)된 행위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지 우리 관습과 달리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는다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예를 나는 보지 못했다. 물론 이런 것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리라. 하지만 우리는 너무 '핵심' 언구에만 매달려 있고, 그런 말이 나온 배경이나 우리문화와의 차이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홀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도 생긴다. 주변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사들의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어떤 '어휘'가 진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천착한다면 도식적 해석으로 흐를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본다. 지금 선어록을 찾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개념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종단 이미지 통일화…해외포교 역점

주요종단 새해설계 진각종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은 종단발전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연구한 바를 종합해 종단의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또 2년뒤로 다가온 종조 회당대종사 탄신 1백주년 기념사업에도 전 종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종단의 이미지 통일화작업(CIP)을 거의 완성하고 오는 3월 공식 발표한다. 불교종단중에서는 최초로 CIP작업을 시도한 진각종은 이번 이미지통일화작업을 통해 밀교종단으로서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표현, 신뢰도와 호감도를 높이는 한편 포교 교육 복지 등 3대 종무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꾀함은 물론, 홍보매체의 시각화와 일치감을 통한 종단 홍보와 포교활동 극대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문화사회부 산하에 있던 포교국을 확대, 부(部)로 승격시킨 것 또한 포교에 종단적인 힘을 쏟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진각종은 네팔과 스리랑카에 개설한 진각복지재단 지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동남아시아 포교 거점으로 삼고 국제불교연구소와 진각복지재단을 주축으로 국제구호활동과 지원, 교류, 협력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해외에 나가있는 신교도를 조직화해 전문포교사로 활용한다. 통일의 시대를 선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북한불교계 지원 등 각종 교류활동에 견인차역할을 하며 상반기중 북경에서 열리는 통일토론회와 고려대장경 번역사업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진각종은 통일시대를 선도한다는 사명감으로 북한불교계와의 각종 교류활동에 견인차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북한을 방문중인 진각종 대표단이 평양 창광유치원을 방문한 모습.

진각종은 올해 업무전산화 예산을 지난해 보다 90%이상 대폭 늘렸다.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인터넷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종단의 의지를 보여준다. 종단 홈페이지를 더욱 새롭게 구축하고 종단 산하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에 링크시키고 종단의 자료실과 사이버심인당을 개설하며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할 예정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도입과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각 교구청 산하기관, 단체와의 인트라넷을 구축해 신행안내는 물론 밀교자료와 출판물의 정보제공등 각종 서비스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것.

또한 올해 육군훈련소 입소대대 법당건립 지원을 시작으로 군불교 지원을 계속하며 숙원사업인 종립 위덕대학교가 군승지정학교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군불교진흥백서도 발간한다.

교화자료집인 '교화연구'와 계간 '생활불교' 발간을 추진하고 일반 대중들에게 밀교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밀교교리대법회를 서울과 대구 부산 등 대도시에서 순회 개최한다.

종조법어집 출간과 진각의범 제작을 위해 사안별 정리작업을 추진하며 전법 및 수계관정불사의 체계성을 완비하여 스승전법관정불사(4월중)와 수계관정불사(11월중)를 봉행한다. 종조법어연구팀을 정비 운영하고 대일경과 삼십칠존 관련 의궤에 관한 연구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밀교관련 문헌에 대한 연구를 위해 1차년도 3개년 계획으로 밀교전서목록 연구작업을 추진하고 제2회 진각논문대상 공모도 실시한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작년 조계종 종회 '부실'

18일간 개의…분과활동도 저조

종회보고서 나와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가 1월 25일 펴낸 '불기 2543년도 중앙종회 활동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조계종 중앙종회는 모두 8차례(138~145회)의 본회의를 열었으며, 종회법에 규정된 60일의 회기 중 18일만 개의했다. 1일 평균 회의시간은 3시간3분에 머물렀다. 안건은 모두 90건을 처리, 회기당 평균 11.2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해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차기종회로 이월시킨 안건은 116건으로 처리한 안건보다 26건이나 많았다.

7개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도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무분과위원회가 19회, 재정분과위원회가 8회에 걸쳐 열렸을 뿐 나머지 분과위원회는 1~5회만 열렸다. 사회분과위원회는 한 차례 회의를 열어 건축법 8조4항 폐지에 따른 대체입법을 정부에 촉구하는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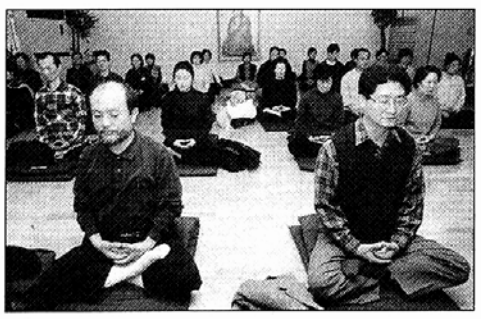
10월 정화개혁회의가 제기한 총무원장부존재확인 소송에 따른 사태의 여파도 있지만 5일 이상 본회의를 개의한 적은 단 한차례로 나타나는 등 지난 해 종회 활동이 전반적으로 저조했음을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의 및 상임분과위원회, 특별분과위원회 운영비와 연구개발비 예산으로 배정됐던 2억2천여만원 가운데 1억5천여만원만 지출됐다.

중앙종회 활동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펴내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185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지난 해 본회의 및 상임분과위, 특별분과위 개의 일수와 처리된 안건 등을 담고 있다. 종회사무처는 매년 보고서를 펴내 종회업무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2000년 무불선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선의 대중화, 생활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무불선원에서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선의 원리를 실용화 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불교의 선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불선학대학원을 설립하고 1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
▪ 2000년 2월 1일 ~ 2월 26일

모집내용
▪ 주간반 00명 · 야간반 00명 · 통신반 00명(비디오 TAPE수강)

전형 및 구비서류
▪ 서류전형(전형료 2만원)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1통
자기소개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자격
▪ 기존 불교교양대학 수료자 및 동등한 불교 교리 숙지자
▪ 선학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희망하는 자(불교 신 · 불신 불문)

합격자 발표
▪ 2000년 2월 28일 ~ 29일(개별통지)

개강 및 강의시간
▪ 3월 6일(총 15주)
▪ 매주 월 · 화요일

등록금(학기당)
▪ 주 · 야간반 : 47만원, 통신반 : 55만원(분납가능)
▪ 과목별 수강 : 과목당 20만원(통신 23만원)

개설강좌

학년	학기	과목명
1	1	선학의 이해 참선실수 중국선사상사
	2	인도선정사상사 선천개설 육조단경
2	1	한국선사상사 선어록 강독 선과 서양철학
	2	경허.만공선사상 선과 현대사회 선과 노장사상
교수진		법산(동국대), 현각(동국대), 종호(동국대), 무비(은해사 승가대학원장), 각성(전해인사 강주), 심재룡(서울대),윤원철(서울대), 김호성(동국대) 한중광(동국대), 박영재(서강대), 신규탁(연세대) 계속 초빙중
※ 졸업 후 전문 참구과정: 조주록, 임제록, 무문관, 벽암록 등 선어록 참구		

※ 학과목 및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선착순 모집합니다.

입학식
▪ 2000년 3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본원 법당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원 사무실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7-5 삼윤빌딩 8층
전화:02)541-0002~3 팩스:02)541-0004
E-mail: moobool@netsgo.com
moobool@channeli.net